

신명기계 역사서와 전·후기 예언서

역사서란

이스라엘에게 역사서란, 인간들의 역사(歷史)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간 역사(歷史) 안에 역사(役事)하시는 하느님의 역사(歷史)를 기록한 책이다. 즉, 역사(歷史)는 하느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현장이며, 이러한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체험들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적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자 저술된 책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서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책이며 ‘그분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전해 주는 신학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류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모세오경(토라), 예언서(네비임), 성문서(케투빔)이다. 그러나 그리스 말로 번역되면서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며, 이때 히브리적 분류와는 다르게 첨가된 부분이 바로 ‘역사서’이다.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 두 가지 작품이 존재한다. 즉 ‘신명기계 역사서’와 ‘역대기계 역사서’이다.

‘신명기계 역사서’는 가나안 땅 진입과 국가의 형성, 남북왕정 시대, 그리고 유배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다.

‘역대기계 역사서’는 창조 때부터 왕정시대, 유배 및 귀환 공동체, 그리고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등 이스라엘 역사 제반을 전달하고 있다.

		범위	비고
역 사 서	신명기계 역사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 열왕기	룻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서로 보기 어려우나 판관기와 그 시대적 배경이 같아 판관기 다음에 배치
	역대기계 역사서	역대기,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토빗기부터 마카베오기는 제2경전에 해당되는 책들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역대기계 역사서’로 보기 어려우나, 역사의 한 단면을 담고 있기에 ‘역사서’ 그룹에 배치

신명기계 역사서란

신명기계 역사서는 그것이 기록된 원칙과 역사에 대한 판단기준이 신명기에 근거해 있다. 즉 신명기의 중심사상은 율법에 충실하면 복을 받고 이를 어기면 재앙을 초래한다는 기본 신학을 근거로 이스라엘 역사를 재정리한 것이다. 다윗을 통한, 왕국에 대한 이상적인 묘사나 죄에 대한 벌도, 신명기의 가르침(특히 28장)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부른다.

신명기계 편집

여호수아가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벌써 이 책에 수록된 여러 전승들이 다소 폭넓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 연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신명기계 학자들은 자신들이 작품에 심고자하는 정신에 따라 이러한 전승들 여기저기에 손질을 가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본문들은 신명기계 학자들에 의해 구성되어 삽입된 작품으로 취급한다. 1장 전체 또는 최소한 1장 1-9절의 도입 부분, 라합의 신앙 고백(2,9-11절 ; 신명 4,39절과 비교), 에발산 모임(8,30-35 ; 여호수아기 24장과 관계가 있고 신명기 27장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분), 정복 요약부분(12장), 24장의 중복부분인 23장 전체.

신명기계 학자들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세속적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인 사건이었다. 가나안 정복은 하느님 구원사업의 단면으로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선적인 것이었다. 학자들이 작품에 손을 대려했을 때는 하느님 계획 실현이 다시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였다. 북 이스라엘 왕조는 이미 멸망했고, 남 유다 역시 초라한 모습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여호수아기가 강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통일된 국가상은 이러한 위태로운 시대에 예언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치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야훼 하느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상이 이집트 탈출이라는 황금시기 안에 삽입되어 나타나며, 율법에 대한 순명을 떠나서는 일치도 하느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음을 재천명한다. 여호수아기에 나타난 이상적 승리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율법을 준수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하느님의 구원 선물이 될 것이다.

왜 '전기 예언서'라고도 불리나

히브리어 경전 전통은 '신명기계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12 소 예언서를 포함하는 후기 예언서에 대칭되는 명칭이다.

전기 예언서라는 명칭은, 여호수아기는 예언자 여호수아가, 판관기와 사무엘기 상하권은 예언자 사무엘이, 그리고 열왕기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저술했다는 전승에서 비롯되나, 이 작품들이 예언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 대변자로서의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작품들의 기본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저런 예언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사무엘, 가드, 나탄,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등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종종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열왕기 같은 경우는 유배시대 이전의 예언 집필가들이 활약했던 시대상황을 잘 묘사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는 그 다음 이어지는 예언서들과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지만, 또한 그 앞부분 즉 모세오경과도 부정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 마지막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며 여호수아기는 모세가 죽은 다음 날로부터 시작된다.